

즐길거리가 넘실넘실...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

26일~10월 26일 해양공원 등 5곳서 매주 금·토 2시간 30분 공연 발라드·트로트·어쿠스틱 등 다채...7월엔 마린페스티벌 선보여

여수의 대표 관광 행사인 '여수 밤바다 낭만버스킹'이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 여수시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26일까지 '낭만버스킹'과 '우리동네 청춘버스킹'을 진행한다. 낭만버스킹은 매주 금·토요일 오후 7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다. 청춘버스킹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밤 9시까지 2시간 동안 펼쳐진다. 청춘버스킹은 여름 성수기 8주 동안에는 금요일에도 열린다.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은 해양공원 3곳과 낭만

포차, 남산공원 등 총 5곳에서 만날 수 있다. 화려한 춤사위와 무용, 어쿠스틱 공연 등 특화된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올해 버스킹 무대는 문화예술공원으로 거듭날 남산공원이 추가로 선정됐다. 남산공원에서는 여름 성수기에 버스킹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동네 청춘버스킹은 여문지구 2곳, 웅천지구 2곳, 소호동다리 등 총 5곳에서 펼쳐진다. 발라드, 트로트, 어쿠스틱 등 여수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노래로 이루어진 공연으로 진행된다. 지역민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우리동네 청춘

플로깅'도 마련된다. 올해부터는 각각 자율거리공연 전용 구간을 지정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선다. 여수시는 곧 개설될 거리공연 전용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연 '썸머페스티벌'을 확대한 '마린페스티벌'을 오는 7월 중 선보일 계획이다. 차별화된 버스커 공연, 악기체험, 페이스 페인팅(분장) 공간, 코스튬(의상) 파티, 마린퍼레이드(행진)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된다. 서재훈 여수시 문화예술과장은 "여수 밤바다 낭만버스킹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여수의 수려함을 널리 알리고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탬 것"이라며 "우리동네 청춘버스킹은 마음의 위안과 희망을 주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지난해 열린 '여수 밤바다 낭만버스킹' 무대에서 출연자들이 공연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광양 '와우생태호수공원' 견고 싶은 길 거듭난다



다음 달까지 정비하는 와우생태호수공원 산책로. <광양시 제공>

다음달까지 산책로 정비

광양시가 다음 달까지 와우생태호수공원 산책로를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책로의 오래된 시설을 보수하고 도로를 다시 포장할 방침이다. 주변에는 메타세쿼이아 77그루

를 심을 예정이다. 와우생태호수공원 산책로는 지난 2011년에 폭 2m, 길이 445m로 조성됐다. 왕벚나무가 주로 심어졌다. 이 공원 일대에는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생기면서 공원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김재신 광양시 공원과장은 "이번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견고 싶은 산책로'가 조성돼 시민 건강 증진은 물론 새로운 녹색 공원 명소를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 자원회수시설 1순위 입지 '삼일동'

다음달 주민 의견 접수

여수시가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1순위 후보지인 '삼일동'을 선정했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입이 금지됨에 따라 2029년까지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을 갖춘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시는 삼일동과 소라면 봉두3리 등 2곳이 입지 후보지로 희망했고, 2곳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용역은 ▲일반적 조건 ▲사회적 조건 ▲환경적 조건 ▲기술적 조건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 분석·평가했으며, 삼일동이 최종 1순위 입지후보지로 평가됐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번 타당성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다음달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 후 주민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된 의견의 종합 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입지 대상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 농어민 공익수당 내일부터 지급

보성사랑상품권으로 60만원...9587명 대상

보성군이 24일부터 5월31일까지 농어업·임업인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2024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한다. 2024 공익수당은 농기당 정책발행용 보성사랑상품권 6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는 9587명이다. 지급액은 57억5000만원이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오는 24일부터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뒤 보성사랑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입원 등의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 수령 확인서를 발급받아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다. 정책발행용 보성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사업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보성군 관계자는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라며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출산 가정에 스마트TV 선물 고흥군-SM그룹, 1억5000만원 상당 200대 기탁식

고흥군과 SM그룹이 출산 가정에 스마트TV 200대를 선물하기로 했다. 고흥군과 SM그룹(회장 우오현)은 지난 18일 고흥 선벨리 리조트에서 1억5000만원 상당 65인치 TV 200대 기탁식을 열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공영민 고흥군수와 SM그룹의 제조 부문 계열사인 SM백셀 최세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고흥군 풍양면 출신으로, 저출생 극복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번에 기탁받은 TV 200대는 올해 출산가정 중 신청자에 한해 차례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오는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2019년부터 현물과 현금후원(1억2100만원·48곳)을 받아 출산 가정에 축북 꾸러미를 전하고 있다. '축북꾸러미'는 고흥군수협 미역 400g·도시락 김 2묶음, 전국한우협회 고흥군지부 소고기 500g, 죽암농장쌀 5kg, 고흥사랑상품권 10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까지 1000여 개의 꾸러미가



고흥군(군수 공영민·가운데)과 SM그룹이 '출산 가정 TV 지원 기탁식'을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각 가정으로 전달됐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한다"며 "고흥군에서도

안정적인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곡성군, 탄생 축하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읍·면사무소서 신청하면 가정 배달... 지난해 62명 출생

곡성군은 지역에서 태어나는 소중한 생명을 기념하기 위해 '아기주민등록증'을 무료 발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출생 후 1년 안에 거주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 탄생을 축하하는 추억이 될 것으로 곡성군 측은 기대했다. 아기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이 실린다. 뒷면에는 태명과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 이름과 소망 등을 적을 수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아기 사진과 신청서를 내면 된다. 한편 곡성 출생아 수는 지난 2022년 44명에서 지난해 62명으로, 40% 증가했다. 곡성군은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과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 육아용품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문수 곡성군 민원실장은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아기 탄생의 기쁜 마음을 추억으로 간직



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색다르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구례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도전'

사전 업무협의회 공모 준비...비전·목표·모델안 등 발굴

구례군이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준비에 나섰다. 구례군에 따르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4대 정책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 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최근 김순호 군수를 비롯한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 군의회 의장, 교육 관계자와 기업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를 위한 사전 업무협의회를 열었다. 사전 업무협의회는 교육발전특구 사업 목적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관계자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용역 발주 추진 상황 보고와 원

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식도 함께 진행됐다. 군은 연구 용역을 통해 구례군 교육 현황과 특성을 분석해 최적의 교육발전특구 비전과 목표, 모델안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구례교육지원청과 TF팀을 구성해 연구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직 체계도 갖췄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군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유아, 초·중·고, 대학, 평생교육까지 아우르는 교육특구 발전 전략이 모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주말엔 돌산갓고을한마당서 '갓섬피크닉'

여수시, 27~28일 개최

여수 돌산갓고을한마당 '갓섬피크닉' 행사가 오는 27~28일로 연기됐다. 여수시는 당초 행사 당일(20일)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부득이 행사 일정을 조정했다. 축제 기간만 변경되며, 갓고을돌산갓체험센터

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는 등 장소와 운영시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갓갓가공품 및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갓김치 담그기 등 가을 주제를 한 체험부스, 버스킹 등 모든 축제 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변경된 기간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축제 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기면서 안전한 봄의 기운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